

## 스웨덴 사회민주주의 - 임금소득자 기금을 중심으로 -

### 조기제

스웨덴 노동운동은 강력한 노동조직과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사민당을 양축으로 하여 스웨덴 사민주의 체제라는 독특한 체제를 형성하여 왔다. 스웨덴 사민주의 체제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단점을 극복한 하나의 대안적 체제로서 인식되기도 하였다. 1970년대 중반에 제기된 임금소득자기금은 스웨덴 노동운동의 또 하나의 진전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평가를 받을 여지가 있었던 최초의 안이 구체적 입안과정을 거쳐 최종안으로 변화되는 과정은 노동운동의 희망과는 달리 노동권력이 안고 있는 한계와 현실을 잘 드러내고 있다. 스웨덴 모델의 운용은 노동의 힘의 성장과 동시에 자본의 힘의 성장을 가져왔다.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으로서의 임금소득자 기금의 제안에 대해 자본진영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표명함으로써 임금소득자 기금에 대한 노동조합측의 입장과 사민당의 입장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었다. 스웨덴 모델이 경제적 성장을 전제로 운영되는 체제인 까닭으로 사민당은 자본진영의 요구에 굴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임금소득자 기금은 자본진영이 노동운동을 공격하는 훌륭한 슬로건이 되었을 뿐이었다.

### I. 서론

사회민주주의(이하 사민주의로 줄임)는 의회주의를 통한 사회주의의 점진적 실현을 그 내용으로 한다. 그동안 사민주의자들이 주장한 사회주의의 점진적 실현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가 혹은 점진적 실현의 내용이 무엇인가, 사회주의에로의 길을 진정 가고 있는 것인가 등의 의문점들에 대해 어떠한 대답이나 판단을 하는가는 사민주의가 지닌 진정한 의미의 생존력을 평가하는 관건이 될 것이다.

이 글은 스웨덴사민주의의 임금소득자기금 lön>tagarfonder<sup>1</sup>에 초점을 맞추었다. 스웨덴의 임금소득자기금은 많은 학자들에게 사민주의가 사회주의의 실현을 위해 계속적인 걸음을 걷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는 근거가 되었기 때문이다.<sup>2</sup>

\* 이글은 「교육부 학술조성기금」의 연구비 지원으로 작성되었음을 밝혀둔다.

<sup>1</sup> 위의 英譯은 wage earner funds가 적절하다. 그러나 사민당정부로서는 그것이 가지는 투자기금으로서의 성격을 강조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최종적인 입법안의 번역은 employee investment funds로 제시되었다.

<sup>2</sup> 다음 글들을 참조하라 Rehn,Gösta.(1985) 'Swedish Active Labor Market Policy : Retrospect and Prospect' *Industrial Relations* 24/1 62-89 Univ. of California at Berkeley ; Meidner,Rudolf, 'Our Concept of the Third Way: Some Remarks on the Socio-Political Tenets of the Swedish Labour Movement' *Economic and Industrial Democracy* ; 1980, 1, 3, Aug, 343-369. ; Meidner,Rudolf.(1978) *Employee Investment Funds*, London : George Allen & Unwin. 등의 스웨덴 노동운동 특히 LO의 이론가들. Korpi,Walter.

그러므로 어떤 근거에서 그러한 주장을 하며 과연 임금소득자기금이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를 이해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 나아가 임금노동자기금을 제의한 주체와 내용, 스웨덴 정치현장에서의 논쟁과 수정, 귀결 등에 대한 전반적 검토와 평가는 사민주의의 점진적 성취에 대한 앞에서의 의문들에 답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 글은 우선 사민주의의 대표적 국가로 간주될 수 있는 스웨덴의 사민주의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를 개괄하였다. 이로써 사민주의의 현재적 의미와 임금소득자기금이 사민주의의 성취에 있어서 차지하는 위치에 대한 이해를 돋우고자 하였다. 이어 임금소득자기금을 제안한 주체와 그 내용, 임금소득자기금을 둘러싼 갈등, 그 귀결로서 입법화된 임금소득자기금의 내용 등을 입법의 주체와 갈등의 방향에 초점을 두어 살펴본다.

## II. 스웨덴의 사회민주주의

사민주의자들의 역사적 경험 가운데 스웨덴사민주의는 실용주의적 특징을 갖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독일 사회주의자들 특히 카우츠키Kautsky의 영향 속에서 그리고 덴마크 사회주의자들의 사회주의 신조의 전파와 교류를 통해 형성된 초기 스웨덴 사회주의자들은 기업의 국유화와 농업의 집산화를 의미하는 사회화socialization를 통해서 사회주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았으며 이것은 마르크스가 주장하듯 혁명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들도 당시 유럽의 많은 사회주의자들처럼 참정권의 확대에 따른 득표율의 비약적인 신장에 의해 크게 고무되었다. 이들은 참정권 확대를 통한 사회주의의 실현, 곧 의회주의적 절차의 수용을 통한 사회주의의 실현이라는 사민주의자들의 성취의 원천이자 핵심에 빠져들었다.

20년대의 참정과 좌절의 경험<sup>3</sup>은 의회내에서 다수를 확보할 수 있어야 사회주의적 입법이 가능하다는 인식을 갖게 하였다. 급진적 슬로건을 내건 1928년 선거에서의 패배

(1978) *The Working Class in Welfare Capitalism : Work, Unions and Politics in Sweden*, London : Routledge. ; Korpi, Walter.(1983) *The Democratic Class Struggle*, London : Routledge. ; Stephens, John D.(1979) *The Transition from Capitalism to Socialism*, London : Macmillan. ; Himmelstrand, U, et al (1981) *Beyond Welfare Capitalism* London : Heinemann ; Esping-Anderson, G.(1985) *Politics Against Markets : The Social Democratic Road to Power*, Princeton, New Jersey : Princeton U Press ; Esping-Anderson, G.(1990)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Princeton, New Jersey : Princeton U Press 등의 권력자원이론가들 Scase, Richard, 1983, "Why Sweden has elected a radical government" *The Political Quarterly* v54 p.43-53 January/March.

3 사민당 정부는 금융기관, 천연자원, 주요기업의 국유화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제출하였으나 이것은 반사민당 연합을 불러 일으키고 뒤이어 실각하게 되었다. Hecko,Hugh & Madsen, Henrik (1987) *Policy and Politics in Sweden : Principled Pragmatism* (Philadelphia : Temple Univ. Pr. p.254

경험은 보다 온건한 주장으로 나아가게 하였다. 스웨덴 사민주의가 장기집권에 성공한 원인을 계급연합을 이루어낸 전략전술적인 대응에서 찾기도 하지만<sup>4</sup> 이러한 연합의 출발이 되었던 농민과의 계급연합은 스웨덴 사민주의의 실용주의 노선의 결과임과 동시에 실용주의 노선을 보다 강화하는 계기로 작동하였다.

32년부터 사민당의 장기집권이 시작되었다. 32년부터 45년사이에 수상을 역임한 한손 Per-Albin Hansson은 ‘인민의 가정forkhem’이란 슬로건으로 스웨덴사회를 변화시켜 가려고 하였는데<sup>5</sup> 인민의 범주속의 노동자와 농민의 결속이 그 구체적이고도 중요한 내용이었다. 노동자 농민의 계급연합은 사회화의 의미의 수정을 가져왔다. 사회화는 곧 사적소유의 부정이라는 종래의 관점에서 벗어나 사회화 곧 국유화는 사회주의적 가치들을 실현해내는 하나의 수단으로 바뀌었다. 나아가 사회주의적 가치들을 실현하는데 있어 사적 소유가 유리하다면 수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섰다.<sup>6</sup>

스웨덴 사민주의자들은 그들의 활동이 참정권획득을 목표로 하는 정치적 민주주의에서 개인의 능력부족이나 시장에서의 지위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곧 복지를 그 내용으로 하는 사회민주주의로 나아갔으며 그 후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소외의 극복과 주체적 참여를 확보하는 경제적 민주주의로 나아갔다.<sup>7</sup> 스웨덴사민주의자들의 집권은 32년이래 76년부터 82년 그리고 91년 이후의 시기를 제외하고 유럽사민주의자들에게는 매우 이례적으로 장기간 지속되었다.

사민주의자들은 집권한 후 우선 사회보장을 통한 사회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들이 제시한 사회보장제도는 선진적인 것이었는데 특히 완전고용의 실현, 연

4 Esping-Anderson,G.(1985) *Politics Against Markets* p.312.

5 이 슬로건은 2차대전前 스웨덴 노동운동이 사회적·자유주의적 모습을 띠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계급갈등과 사회적 부정의로부터 벗어나 인민의 가정forkhem으로 인식된 복지국가를 건설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Meidner, Rudolf,(1980) ‘Our Concept of the Third Way : Some Remarks on the Socio-Political Tenets of the Swedish Labour Movement’ *Economic and Industrial Democracy*; 1980, 1, 3, Aug, p.343 이것은 한손Hansson이 1928년 사민당 당수로서 의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등장한다. 그는 “좋은 가정에는 평등, 배려, 협동, 조력 등의 미덕이 있다. 이런 미덕이 국가와 사회라는 가정에서도 이루어진다면 오늘날 시민들을 분리시키는 사회적 장벽들이 사라질 것이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헨틸래는 한손의 주장 이전에 스웨덴노동운동의 이데올로기가 folkhem이데올로기였으며, 이것은 개혁주의적 수단을 통해 계급갈등을 종식시키고자 함으로써 불가피하게 사회주의를 예고하고 또한 이것은 미래의 이상사회를 약속하는 이데올로기라고 주장한다. Hentilä, S.(1978)’ The origin of the *folkhem* ideology in Swedish social democracy’, *Scandinavian Journal of History* No3 323-45.

6 Sainsbury,Diane(1980). *Swedish Social Democratic Ideology and Electoral Politics 1944-1948 : A Study of the Functions of Party Ideology*. Stockholm : Almqvist & Wiksell.

7 경제민주주의의 내용들은 이미 20년대의 주장들에서도 나타난다. 그리고 오늘날의 시점에서도 경제민주주의의 주장은 몇 가지의 실현적 제안으로 이루어져 있을 뿐 명확하게 확립된 주장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견해가 있다. Himmelstrand, Ulf, et al (1981) *Beyond Welfare Capitalism* pp.309-12. 그리고 Rock,Charles P. (1987), “Recent Reforms Democratizing Swedish Economic Institutions” *Journal of Economic Issues* Vol.XXI No.2 June 1987 pp.837-845.

내 임금정책을 통한 노동자계급의 일체감의 생성 등을 성공적이었다. 이러한 사회보장과 함께 경제적 성취도 놀라운 것이었다. 19세기 중반, 산업화의 길에 뒤늦게 들어선 스웨덴이 1960년대에는 세계최고의 국민소득으로 미국과 더불어 후기산업사회의 대표적 국가로 거론되며 연구의 대상으로 등장하기도 하였다.<sup>8</sup>

70년대 중반이래 스웨덴의 경제는 전후 국제경제의 고원경기의 종막과 1,2차 오일쇼크, 신흥공업국들의 등장 등을 통해 크게 타격을 입게 된다. 여기다 작업현장의 결정과정에서 소외된 노동자의 불만이 1969-70년 스웨덴 북부 키루나의 광산지대에서의 wildcats strike로 상징적으로 표출되었다. 이러한 사태는 사민당 정부와 LO(Landsorganisationen i Sverige: 스웨덴 노동조합총연맹)가 추진해 왔던 민주주의의 실현 혹은 사회주의적 가치의 실현에 있어 한 단계 더 전진할 것을 요구하였다. 작업장에서의 소외현상, 현대임금정책이 그 원인으로 작용한 사적자본의 집중현상 같은 시급히 수정되어야 할 사회적 과제로 부각되었다.

사민주의자들은 사용자계급의 적극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공동결정권 MBL을 통과시켰으며(1976년) 임금소득자기금안을 내어놓았다. 이것은 스웨덴 사민주의자들의 과제가 경제민주주의로 한 단계 더 진보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공동결정권은 자본가들이 경영권이라는 이름으로 절대적으로 고수해왔고 1938년의 살트쉐바덴 협정에서 노동자들이 경영자의 권리로서 인정하였던 부분들을 이제 재검토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이로써 노동자들은 경영의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경영의사 결정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노동자들과 사용주의 합의 사항에 대한 해석이 상이할 때는 노동자들의 해석에 따르게 되었다. 그리고 노동자들이 그들의 작업감독권을 선정하여 작업의 위험이 있을 때는 작업을 중지시킬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 이것은 분명 산업민주주의의 현저한 진전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임금소득자기금안은 보다 적극적이고 균원적인 것이었다. 간단히 말하자면 임금소득자기금안은 기업의 이윤과 임금의 일부분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이를 피고용자들이 (그 대행자로서 노조가) 투자에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제 임금소득자기금안이 제안되는 배경과 주제, 그리고 논쟁의 과정과 결과 등을 살펴본다.

### III. 임금소득자기금의 내용과 입법과정

#### 1. 임금소득자기금안 이전의 논의들

이미 1928년 비그포르스 Ernst Wigforss는 상속세를 무겁게 매겨 세액을 공공투자기금으로 사용하자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1928년의 선거에서의 침각한 패배를 가져

<sup>8</sup> 예컨대 Hopkins, Karen Sweden : *Focus on Post-Industrialism*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Hall, 1977).

오는 한 원인이 되었을 뿐이었다.<sup>9</sup> 이윤을 나누어 갖고자 하는 계획은 소수의 박애주의적 기업가에 의해서 그리고 때때로 자유당에 의해 제안되기도 하였으나 노동운동의 지도자들은 이것을 노동계급의 지지를 얻고자하는 속셈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배척하였다. 이러한 구상은 노조와 노동자의 연대성을 훼손할 뿐이라는 것이라고.<sup>10</sup>

1951년 LO대회에서 지방정부의 한 피고용인이 처음으로 노동운동의 연대임금정책에 부합하는 임금소득자기금을 제안하였다. 동일한 노동에 대해 기업의 이윤에 관계없이 동일한 임금을 받고자 하는 연대임금정책은 고이윤기업의 초과 이윤이 기업가에게로 돌아가도록 함으로써 사회내의 소득 격차를 늘린다는 결점을 안고 있었다. 그는 고이윤기업의 노동자들이 이윤에 걸맞는 고임금을 받도록 하고 이러한 이윤 상승분을 '임금 균등화 공동기금 wage equalization pool'으로 하여 저임금 부문의 임금을 보전하자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경제성장에 요구되는 투자재원의 확보와 저이윤 기업의 혜택이라는 정책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사적 동기의 재분배 요구일 뿐이라고 LO의 전문가들은 진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50년대 중반, 전사민당 재무부장관이었던 스콜드 Per Edvin Skold는 노동조합의 힘이 증대함에 따라 노동조합은 이제 투자를 위해 저축을 증대하고 인플레이션 구매력을 떨어뜨릴 책임을 가지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스콜드는 과소비로 경제안정이 위협받으면 노동자들은 임금 증대분을 그들 기업의 주식으로 소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스콜드의 주장은 노동자들의 연대를 해치는 발상이라고 비판당하지만 노동운동내에 사회문제의 개별적 처리에 대한 주장이 나온다는 것은 흥미롭다.<sup>11</sup>

임금소득자기금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던 보충연금(ATP)기금<sup>12</sup>도 좌파나 노동조합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였다. 한 때 보충연금계획의 도입은 노동운동가들에게 축적된 연금기금이 사적투자의 방향을 결정짓는 힘을 가질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지게 하였다. 일반 노동운동가들에게도 연금제도 재원의 저축으로 자본형성에 있어 노동자들의 영향력이 증대되리라고 기대하였다. 그러나 사민당 정부는 투자와 경제 성장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기업 부문의 반감을 불러 일으키지 않으려 하였다. 연금기금은 3개로 분산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금의 투자도 사적인 상업적 은행이

9 Sainsbury,Diane(1980). 앞의 책.

10 임금노동자들이나 노동조합이 집단적으로 투자기금을 마련하고 관리하겠다는 구상은 스웨덴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산업민주주의와 경제민주주의의 간략한 설명과 독일, 덴마크, 스웨덴 등의 경제민주주의의 비교는 Esping-Anderson,G.(1985) 289-313. 그리고 캐나다의 퀘벡자치주, 덴마크 등의 사례와 스웨덴의 비교는 Anderson,John. 1988, "Employee and Trade Union Investment Funds in Quebec and Sweden: A New Strategy for Labour?" *Lund Studies in English*, V.78, 15-47.; Esping-Andersen,Gosta. 1981, "From Welfare State to Democratic Socialism: The Politics of Economic Democracy in Denmark and Sweden", *Political Power and Social Theory*, 2, 111-140.

11 Hugh Hecllo & Henrik Madsen. 1987, 257-8

12 스웨덴의 연금제도는 동일율의 보통연금에다 기여금의 정도에 따라 주어지는 보충연금(Arbejdsmarkedets Tillägspension: ATP)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다.

나 중개 기관의 연금관리위원회에 의해 관리되었다. 좌파와 노동조합의 반발에 의해 1973년에 만들어진 제4기금도 비록 사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되었지만 그 운용이 수동적이고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여 기업가들이 우려할 정도가 되지 못하였다. 결국 70년대 중반에 이르러 보충연금의 자산이 스웨덴 자본시장의 40%를 이루고 있음에도 사기업의 투자방향을 결정하거나 노동자의 영향력을 중대하는 방향으로 사용되지 못하였다.<sup>13</sup>

## 2. LO와 임금소득자기금

임금소득자기금을 제안하는 것은 LO의 메이드네르 Meidner였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간 것은 LO였다. LO내에서 임금소득자기금의 구상은 비록 형태를 달리하지만 196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61년 LO 대회에서 마이드너를 연구책임자로 하는 LO연구부가 제출한 연구보고서 「경제팽창과 구조변화 Economic Expansion and Structural Change」의 한 부분에서 메이드네르는 '산업부문 합리화 기금 branch rationalization funds'을 만들 것을 제안하였다. 경쟁력이 충분한 기업을 확장하고 경쟁력이 부족한 기업을 도태시키는 구조 조정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경영자와 노동자가 산업부문위원회 branch council에서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종래의 구상에 메이드네르는 이러한 조정이 힘을 가지기 위해서는 재정이 확보되어야 하며 이러한 재정의 확보를 위해 경영자와 노동자가 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기금은 개인에게 자본의 집중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면서도 자본을 형성할 수 있는 방안으로 거론되어졌다. 그러나 이 구상은 노동현장의 지도자들에 의해 거부되었다. 금속노조의 대표였던 널손 Åke Nilsson은 이 기금에 대한 협상이 노사협상에 부과됨으로써 노조의 진정한 업무인 임금증대라는 협상목표가 회색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였다.<sup>14</sup> LO의 66년 대회에서는 산업부문기금 branch funds을 만들어 구조조정으로 실직한 노동자를 돋는데 사용하자는 주장이 있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러한 구상들은 산업자본을 집단적으로 형성한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후 임금소득자기금 구상의 직접적인 바탕이 된다.

71년 LO대회에서 금속노조의 널손은 임금소득자기금의 장점을 연구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스웨덴의 투자행위가 주기적으로 변화하는데다 71년에 들어 무역적 자와 투자의 정체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본의 형성과 관리가 필요하였으며 동시에 소수의 개인에게 자본이 집중되는 일 없이 자본공급을 늘리는 것이 노동운동진영이 해결해야 할 과제였다. 71년 LO지도자 예이여르 Geijer의 요청에 따라 메이드네르를 중심으로 하는 위원회가 구성되었다. 메이드네르는 서독노동운동에 있어 임금소득자기금이 이루어낸 지적 정치적 중요성에 깊은 인상을 받았지만 일정 기간의 보유 후에 개인이 그들 뜻의 기금을 인출해 갈 수 있게 한 것에 대해서는 반

<sup>13</sup> Hugh Hecllo & Henrik Madsen, 1987, 259

<sup>14</sup> Hugh Hecllo & Henrik Madsen, 1987 261

대하였다. 메이드네르의 관심은 연대임금을 유지하면서도 초과이윤을 처리하는 방법에 있었지만 75년에 내놓은 안은 ‘사회적 권력과, 자본적 부에 대한 노동자 통제 social power and workers’ control over capital wealth’(Hugh Heclo & Henrik Madsen, 1987 266)라는 매우 정치적인 측면에 일차적인 관심을 두고 있었다.<sup>15</sup>

1975년 8월 메이드네르 위원회는 그들의 보고서를 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두 종류로 임금노동자기금을 형성할 것을 주장하였다. 하나는 기업수준의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전국적 수준의 기금의 형성이었다. 전자는 매년 기업이윤의 20%를 우선적으로 투입함으로써 형성하며 각 기업에서 직접 선출된 노동자들에 의해서 관리된다. 기금은 기업의 주식을 사는데 사용되며 여기서 생겨나는 배당은 노동자 복지를 위해 사용한다. 매년 기금을 늘려감으로써 장기적으로는 노동자들의 주식비율이 현재의 사적 소유자들의 주식비율보다 높아질 것이고 노동자들에 의한 관리가 이루어질 것이다. 후자의 경우는 전체 임금에 대한 세금으로 형성된다. 이것은 보다 균등한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 자원의 재분배와 조정의 역할을 담당한다. 이것은 노동자들의 경영기술습득을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1975년 메이드네르Meidner안이 LO에 제안되었을 때 LO의 지도부는 이를 지지하였지만 적극적이지는 않았다. 그들이 원하는 사회주의, 임금소득자기금하의 노동조합의 역할, 미래의 사회체제를 형성할 여러집단들 사이의 대화의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를 요구했던 것이다.<sup>16</sup> 그러나 각 노동조합의 일반활동가들은 임금소득자기금의 실현을 강력히 원하였다. 그것은 기업의 도산과 실업의 발생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이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본의 형성과 투자를 노동자의 영향력 하에 넣어야 할 필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이었다. 보충기금이 기대하였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임금소득자기금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졌던 것이다.

1976년 6월의 LO전국대회에서 약간의 수정을 거친 메이드네르안을 채택한다. 수정의 내용은 반자본주의적 언사를 부드럽게 고치고 임금소득자기금은 초과이윤을 처리함으로써 연대임금정책을 보완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는 정도였다. 여전히 중앙이나 부문별 자본기금 — 노동조합대표의 통제하에 놓이게 된다 — 을 형성하기 위해 모든 주요기업의 이윤의 20%를 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 3. 사민당과 임금소득자기금

사민당은 임금소득자기금의 실행을 주저하고 이를 완화시키려는 입장에 섰다. 사민당은 1976년의 선거를 앞두고 감표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려고 하지 않았다. 선거에 참여한 사민당의 필연적 온건화<sup>17</sup>를 스웨덴 사민당도 피할 수

<sup>15</sup> Hugh Heclo & Henrik Madsen, 1987, 259-60

<sup>16</sup> Hugh Heclo & Henrik Madsen, 1987 270

<sup>17</sup> Przeworski,Adam (1985) *Capitalism and Social Democracy*, Cambridge : Cambridge univ. Press;

없었으며 이것은 스웨덴 실용적 사민주의의 귀결이기도 하였다. 그들의 기능적 사회주의는 자본의 사유를 인정하면서 사적 자본의 기능을 사회 또는 노동자의 수중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당연히 그들은 자본의 소유문제를 직접 견드리는 임금소득자 기금을 지지함으로써 많은 지지자를 이탈시킬 위험을 부담하고자 하지 않았던 것이다. 팔메Palme를 비롯한 사민당지도부는 임금소득자기금이 중요한 만큼 더욱 연구 검토하자고 주장하는 정도였다. 임금소득자기금안에 대한 논쟁이 중요한 이슈의 하나였던 1976년의 선거에서 사민당이 패배하였다. 그러나 임금소득자기금안이 사민주의진영의 패배에 영향을 미친 정도는 미약하였다.<sup>18</sup>

1978년 10월 당대회에서 임금소득자기금안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할 합동소위원회가 구성되었다. LO와 당지도부를 모두 만족시키고자 하는 보고서를 만들려는 이들의 작업은 결코 쉽지 않았으나 그들의 보고서는 임금소득자기금의 4번째 목표로서 투자자본의 창출을 강조하였고 500인 이상의 기업에만, 급료와 배당금을 공제한 수익의 20%만을 징수하며 추가로 3%의 고용세로 발전기금을 형성한다는 것 그리고 24개의 지역기금으로 구성한다는 것 등을 중요한 특징으로 하고 있었다.

1981년 LO와 사민당은 마침내 임금소득자기금에 대한 공동전선을 구축한다. 사민당의 입장으로서는 그간의 주저하는 입장이 선거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노동운동가들과의 관계만 불편하게 하였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LO의 경우는 어떤 형태의 임금소득자기금안이든 실현되려면 사민당의 집권이 필연적으로 요구된다는 인식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1982년의 선거에 앞서 LO와 시민당은 임금소득자기금안에 합의한다. 그 내용은 노동자기금을 국가연금제도에 접목시킨다는 기본적인 구상 위에서 우선 기금의 재원을 1) 기업이 출연하는 보충연금을 1%증대하여 징수하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노동자들이 부담하는 고용세payroll tax이다. 2) 기업의 초과이윤의 20%를 징수함으로써 마련하고자 하였다. 조직은 24개 각 지방자치단체county마다 기금을 형성하여 일군의 감독관들에 의해 관리되도록 하였다. 노동자들의 통제하에 기금이 놓이게 된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감독관은 노조의 추천에 의할 수도 있으나 직접선거를 통한 방법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에 섰다. 기금으로 어느 기업에서나 투표권이 있는 주식을 살 수 있으며 어떤 조건 아래서는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기를 거부하는 기업에서도 주식을 살 수 있도록 하였다. 기금이 약체 기업의 도산을 막아 단지 직업을 유지하는데 쓰여지지 않도록 기금은 투자에 따른 적절한 수익을 올려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각 기금은 정부의 보충연금기금에 매년 일정율의 사용비를 지불하여야 하였다.<sup>19</sup>

Przeworski, Adam and J. Sprague, (1986) *Paper Stones : A History of Electoral Socialism*, The MIT Press. 참조

18 핵문제가 단일 이슈로는 사민당을 궁지에 몰아넣은 가장 큰 이슈였다. Petersson,O.(1978) 'The 1976 election: new trends in the Swedish electorate' *Scandinavian Political Studies*, No.1 109-21; 애스핑안델센(1985)은 임금소득자기금에 대한 사민당의 미온적 태도가 감표의 요인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반사민당연합이 만든 사민당의 부정적 이미지가 약하게나마 감표에 작용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주장들은 메이드네르안을 약화시킨 것이긴 하지만 이윤을 통해 재원을 충당하고 기금을 집합적으로 소유하며 자본에 대한 노동자의 투표력을 고양한다는 점에서 그 기본적 원칙은 1976년이래 후퇴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 자유당과 중앙당은 초기 주장하였던 개인 소유의 강제저축 기금안을 철회하고 어떠한 노동자 기금도 반대하는 보수당의 입장을 받아 들였다. 고용주의 대표들은 본질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일의 세부사항을 협상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식적 협의조차도 거부하였으며 반사민 3당은 그들이 권력을 잡기만하면 기금계획을 철회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스웨덴은 보다 강한 대립의 국면에 접어 들었다.

사민당은 따라서 이들의 반대를 무마하기 위해 내용의 수정을 시도한다. 1983년 에딘 Per-Olof Edin이 이끄는 노동자기금 연구팀이 구성되었다. 이들이 제출한 계획은 표현이나 내용에 있어 1976년의 마이드네란의 색조를 다시금 약화시켰다. 그 내용은 1) 자

〈표 1〉 임금 소득자기금안의 변화과정

	76년의 메이드네르안	78년 LO 사민당안
목 표	1. 연대임금정책의 보완 2. 부의 집중에 대한 견제 3. 노동자의 영향력 증대	4번째 목표의 추가, 투자자본의 창출
재원과 범위	거의 대부분의 기업으로부터 과세전 수익의 20%를 신주의 형식으로 징수	500인이상의 기업에만 20%징수 급료와 배당금은 공체
관리(기금의 종류와 위원회의 선출)	노동조합에 의해 중앙기금위원회 선출, 노조와 공공 대표에 의해 부문별 기금 위원회 결성	24개의 지역기금, 3%의 고용세로 발전 기금추가 형성
통제(선거권, 배당금의 사용)	지역노조가 처음 20%의 투표권차지, 이후 부문별기금이 투표권 행사. 배당금은 주식, 서비스 구입	지역노조와 지역위원회가 처음 40% 투표권 차지
	81년 LO 사민당안	83년 LO 상민당안
목 표	4번째 목표 강조	4번째 목표 강조
재원과 범위	“초파” 이윤에 대해서만 20%과세 주된 재원은 : TP 세금의 1%증액	“초파”이윤에 대해서만 20%과세, 기업은 주식을 의무적으로 기금에 매각
관리(기금의 종류와 위원회의 선출)	노조가 제공하는 명단중 의회나 정부가 선출하는 24개의 지역기금	노동자대표를 다수로 하는 5개의 지역 기금, 9인의 위원을 모두 정부 임명
통제(선거권, 배당금의 사용)	지역노조와 지역위원회는 최초20%의 투표권차지 배당금의 일부는 ATP기금으로	투표권은 기금위원회에 50%는 지역노조에 줄 수도 있다. 배당금의 일부는 ATP기금으로

자료: Gregg M. Olsen, pp.39-40

본에 대한 노동자의 결정작성력을 언급하는 대신 기금은 risk capital의 공급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2)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5개의 기금으로 구성되며 운영진은 정부 지명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노조대표가 다수를 차지하도록 한다. 3) 재원은 82년의 제안과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보충연금고용세 ATP payroll tax(임금의 0.2%)를 높이고 순이윤의 20%를 재원으로 충당한다. 4) 기금관리인들은 어느 기업에도 투자할 수 있으나 보충연금기금에 투자액의 3%에 해당하는 이윤을 지불해야 한다. 기업피고용인들이 기업으로 하여금 기금을 사용하기 위해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그러나 지방노조는 기금주식에 따르는 투표력의 절반에 이르기까지 투표력을 이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sup>20</sup>

사민당 정부는 83년 8월 이를 입법화하였다. 그들은 이러한 내용의 임금소득자기금을 1984년부터 시험적으로 1990년까지 6년동안만 운영하기로 하고 이 법을 통과시켰던 것이다. (당시의 예상으로는 1990년에 기금액이 1400만-1700만 크로나 정도에 이르러 스톡홀름 주식시장에 상장된 총주식의 8%정도를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입법화된 임금소득자기금은 그 규모에 있어서 그리고 그 시기에 있어서 분명한 제약을 지니고 있었다. 이 기금이 어떤 형태로든 계속해서 증가되지 않는 한 이것이 사회주의로의 평화적인 이행의 도구가 될 수 없었다.

#### IV. 임금소득자기금 제안의 사회경제적 배경

##### 1. 연대임금정책과 초과이윤

연대임금정책은 노동운동이 이루어낸 성과물이면서 부담이었다. 기업이 가지는 생산성에 관계없이 동일 노동에 대해 동일 임금의 원칙을 고수하려는 연대임금정책 아래서는 생산성이 낮은 기업이 도태될 수 밖에 없으며 생산성이 높은 기업은 보다 많은 이윤으로 투자를 확대할 것이기 때문에 생산성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이것은 한편으로 노동자들의 연대의식을 고양한다. 노동내부의 갈등과 분열은 노동권력이 형성되기 위한 핵심적 요소인 단결을 해친다. 그러므로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은 노동운동이 추구하는 중요한 목표이다.<sup>21</sup> 그러나 연대임금정책의 시행으로 노동자들의 연대의식을 고양하게 되었지만 동시에 부의 집중을 강화시켰다. 생산성이 높아 많은 이윤을 남기는

20 Hugh Hecllo & Henrik Madsen, 1987, 282.

21 연대임금정책은 60년대에 들어 광범위한 합의를 얻게 되고 노동시장위원회(AMS)를 설치함으로써 그 조합주의적 구조가 완성된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취한 스웨덴의 경우 연대임금정책에 따라 실직 하게된 생산성이 낮은 부문의 노동자를 재교육시켜 생산성이 높은 업종으로 재배치하는 역할이 뒤따라야 하였으며 이 역할을 노동시장위원회가 담당하였다. 신광영, 1990, “스웨덴 사회민주주의와 경제정책”『사회비평』 제4호pp.266-7 ; Jonas Pontusson, 1987, “Radicalization and Retreat in Swedish Social Democracy” *New Left Review* 165, P.9.

기업도 동일한 임금을 지불함으로써 보다 많은 이윤을 남기게 되었고 이것을 바탕으로 자본의 집적과 집중이 강화되었던 것이다.

70년대에 이르기까지 사민당정부가 추구해 왔던 전략은 성취된 정치적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빈곤이 가장 잘 퇴치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 대한 그들 나름의 대답이었다. 스웨덴 노동운동은 노동조합의 임금투쟁과 복지국가적 재분배를 통해 보다 평등하게 분배할 국가전체의 부를 키우고자 자본주의적 틀내에서의 안정적 경제성장 전략을 채택하였다.<sup>22</sup> 그러나 그 결과는 의도하였듯이 재분배를 통한 평등에로 나아간 것이 아니었다.

‘사회민주주의 정책은 정치적 경제적 권력을 임금취득계급들에게로 분산시킨 것이 아니라 국가관료와, 금융 산업 엘리트들인 극소수의 자본가, 경영자계급의 수중에 집중시켜 왔다.’<sup>23</sup> 결국 LO의 경제학자인 메이드네르는 “만약 우리가 자본소유자들로부터 그들의 소유권을 빼앗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거나 경제적 민주주의를 해나갈 수 없다”<sup>24</sup>고 단언하였던 것이다.

60년대 후반에는 연대임금정책의 결과로 고이윤기업의 경우 노동자들의 초파이윤 분배의 요구에 부딪히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많은 이윤을 얻게 되었고, 약체기업의 퇴장이 촉진되었다. 구조조정에서 야기되는 실업의 문제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의하여 보완되었으나 초파이윤의 문제는 이제 70년대 중반의 임금소득자기금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60년대에 특정기업의 과도한 이윤의 문제는 명백해졌고 70년대 전반에는 펠프 제지 공업에서 그 문제가 특히 두드러졌다. 이러한 초파이윤에 대한 관심이 LO로 하여금 임금소득자기금안을 작성케 하였다. 70년대 초만 하더라도 스웨덴 기업은 전례없는 경제적 호황을 누리고 있었다. 과도한 이윤이 호황으로 말미암은 것인든 연대임금정책으로 인한 것인든 노동의 결실인 이윤이 과다하게 자본가의 수중에 들어간다는 사실은 노동자의 관심사일 수 밖에 없었다. 이제 그 통제를 노동자들이 요구하고 나섰던 것이다. 그러나 곧 이어 닦친 오일쇼크와 경제적 곤경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초기의 의도가 지탱되기는 어려웠으며 투자기금으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지 않으면 안되었다.

## 2. 경제의 악화

노동운동이 임금소득자기금을 추진하였던 것은 국제경제 상황의 변화로 인한 경제악화가 하나의 원인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70년대에 들어 월남전쟁의 여파, 2차에 걸친 오일쇼크, 신흥공업국의 대두 등은 전후의 고원경기의 종말을 고했다. 대외의존적이

<sup>22</sup> Ulf Himmelstrand, et al. 1981, pp.308-9.

<sup>23</sup> Sven Steinmo. 1988, “Social democracy vs. socialism : goal adaptation in Social Democratic Sweden” *Politics & Society*, V.16, P.405.

<sup>24</sup> LO의 정기간행물 *FACK*에서 주장 Sven Steinmo. 1988, p431.에서 재인용.

고 수출지향적인 스웨덴 경제가 입은 타격은 특히 커다.

국제시장의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국내기업들도 여기에 대처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부정적 효과가 생겨났다. 기계 화학과 같은 유망업종은 국제경쟁의 강화에 대처하여 해외의 직접투자를 늘리고 국내에서도 노동력 절감시설에 투자를 늘림으로써 연대임금정책이 목표했던 고용창출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던 것이다. 70년대와 80년대의 대량실업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의 보조와 공공부문의 고용을 늘림으로써 가능했다. 그러나 정부재정의 한계를 피할 수 없었다. 이것은 장기적인 전략이 될 수 없었다. 60년대 후반의 기간산업 합리화로 생겨난 일시해고자들이 지역적으로 편중됨으로써 지역적 쇠퇴를 강화하였다.<sup>25</sup>

당연히 60년대 후반과 70년대 초반에 기업의 이윤율이 떨어졌으며 적정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완전고용, 가격안정, 수출경쟁력 등은 스웨덴 사민당 정부가 자랑하던 것이었으나 이것을 전통적인 자유주의적 경제정책으로 유지하는 것이 점차 힘겨워졌다.<sup>26</sup>

스웨덴의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적인 경제정책내에서 높은 수입가와 낮은 수출경쟁력이라는 국제경제적 역경을 헤쳐나가는 방법으로는 누군가의 회생위에서 사기업의 이윤을 확보해주는 길밖에 없었다. 즉 저수익률에 따른 사기업의 투자의욕상실이 대량실업을 가져오는 것을 막기위해서는 사기업의 수익률을 높혀야 하였다. 그러나 스웨덴의 경우 기업의 이윤을 높리기위해 사회혜택이나 임금을 줄이는 것은 강력한 노동운동앞에서 정치적으로 어려운 일이었다. 전체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면 노동자가 전체적으로 거부할 것이고, 수출부문 노동자만의 임금이라도 삭감하려 들면 연대임금정책의 혼돈과 임금격차의 확대가 불가피하게 뒤따르리라 예견되었다. 그렇다고 사회적 경비의 삭감은 사민주의자체의 부정을 의미할 것이고 특히 공공부문의 화이트칼라 노동자의 소득삭감은 블루칼라와 화이트칼라 노동자의 단결을 해칠 것이었다.<sup>27</sup>

여기서 보다 진지하게 검토되었던 것이 바로 임금소득자기금였으며 그들은 이 기금으로 투자를 창출할 수 있으리라고 보았다.

### 3. 노동권력의 성장과 경제 민주주의

Himmelstrand는 이미 30년대에 스웨덴 사민주의자들이 다단계적인 사회화 전략을 수립하였다고 한다. 그에 따르면 개량주의적 노동운동이 금세기 초에 그들의 주된 과제로 삼았던 것은 사회주의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빈곤을 퇴치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임금투쟁 뿐만아니라 정치적 수단들에 의해서도 이루어 질 수 있었기 때문에 일단계로 정치적 민주주의의 도입을 위한 투쟁에 나섰다는 것이다. 1921년에 보통평등선거의 정치

<sup>25</sup> Pontusson, Jonas, 1987, 16.

<sup>26</sup> Esping-Anderson, G. 1985, 296.

<sup>27</sup> 위의 글 289.

적 민주주의가 성취되고 노동자가 다수를 이루게 되자(1930년대 중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수단으로 어떻게 하면 빈곤이 가장 잘 퇴치될 수 있을까하는 문제에 직면하였다. 스웨덴 노동운동은 노동조합의 임금투쟁과 복지국가적 재분배를 통해 보다 평등하게 나눌 국가전체의 부를 키우고자 자본주의적 틀내에서의 안정적 경제성장 전략을 채택하였다. 전후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시기가 지나가고 자본주의적 생산양식내에서 부의 생산과 재분배만을 추구하는 것은 여전히 잔존해 있는 빈곤을 제거하기에 불충분한 것 이었다. 이제 주된 임무는 부의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부를 관리하는 것이다.<sup>28</sup>

이것의 실현을 위해서는 추진세력이 그럴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LO의 이론가들과 콜피, 스테픈, 애스평안델센, 힘멜스트랜드 등의 권력자원론자들은 스웨덴 노동운동진영의 계급형성과 계급동맹의 전략의 결실로 노동의 힘이 꾸준히 증가하였다고 주장한다.

1976년 LO경제학자 헤드보리Anna Hedborg는 사민주의자들의 잡지인 티덴Tiden에서 '산업민주주의'를 뒤늦게 주장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였다. 그녀에 따르면 20년대에 비그포르스가 산업민주주의에 대한 연구를 이끌었으나 급진적인 제안을 하기에는 시기가 성숙치 않았기 때문에 어떤 실제적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고 한다. 그녀는 LO가 최근 산업민주주의의 실현으로 태도를 바꾸고 보다 넓은 의미의 경제민주주의가 등장하고 있는 것은 1920년이래 천천히 그러나 지속적으로 자본과 노동의 힘의 관계가 변화해 왔기 때문이라고 한다. 노동운동이 굳건히 뿌리박하고 누구도 위협을 각오하지 않으면 노동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기업에서의 노동의 대표권과 같은 제한된 개혁이나마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sup>29</sup>

사회당은 순수를 고집하며 야당으로 남거나 집권하기 위해서 연대할 계급을 찾아야 했다고 애스평안델센은 주장한다. 그러나 동맹전략 하에서도 사민당이 어떤 조건하에서 그들 자신의 장기적 이익에 부합하게 사회를 변화할 것인가를 탐색하고 추구함으로써 사민주의적 변화가 가능하다고 한다. 애스평안델센은 초기 사민주의자들의 성장이 농민들과의 동맹을 맺을 수 있었던 데 있다고 강조하고 이제 화이트칼라와 동맹을 이루어 낼 수 있는가가 관건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금세기에 들어 스웨덴 노동운동진영의 힘이 증

28 Himmelstrand, Ulf, et al (1981)308-10. 이러한 주장은 금세기 스웨덴사민의 정책의 전개과정을 잘 그려내는 것이라는 하지만 단계적 목표를 두고 추진해 왔다는 주장을 수용하기는 어렵다. 경제민주주의는 노동운동의 한 목표로 30년대에 제시되었던 것이나 이것은 추진할 노동의 힘이 약했고 시대적으로 파시즘의 등장을 경계해야 할 시점이었기 때문에 철회되었던 것이다. 이후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와 결합한 복지국가의 건설이 벽에 부딪히자 정책대안으로 부활시킨 것일 뿐이다. 복지로 상징되는 사회적 시민권의 획득을 목표로 하는 사회민주주의의 단계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경제민주주의의 단계로 나아간 것이라는 주장을 할 수 있으며 사회민주주의의 단계에서 추구하였던 복지의 실현은 계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이고 그 재원의 조달방법으로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의 부분적인 조정만으로 이루어 낼 수 없음에 따라 전면적인 수정을 계획했던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9 Himmelstrand, Ulf, et al (1981)270-1에서 인용.

대하였음을 부인하지 않는다.<sup>30</sup>

이들은 모두 임금노동자기금이 노동운동이 거쳐온 역사적 발전단계의 마지막 단계를 드러낸다고 본다. 정치적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사회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을 거쳐 경제적민주주의를 향한 투쟁으로 나아가는 역사적 발전단계의 마지막이라는 것이다.

분명 20년대나 30년대에 비하면 노동의 힘이 증가되었다고 할 수 있다. 폴피가 주장하듯 노동의 힘의 원천이 조직에 있다고 할 때 노동의 조직율은 90%를 넘고 있다. 그리고 임금소득자기금이 적극적으로 제기되었던 76년이란 시점은 32년이래 사민당의 집권이 이어져 오던 시기였기 때문에 정치권력도 노동운동에 있었다. 또한 장기집권을 통하여 평등, 연대 등의 사민주의적 가치를 확산하고자 하는 노력도 지속적으로 기울여졌다.

## V. 임금소득자기금의 실제적 전개

### 1. 계급갈등의 증폭

권력자원론자들은 스웨덴 사민주의의 각각의 발전 단계가 힘의 균형을 검토한 후에 전략적으로 선택한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여기에는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우선 노동을 단일 행위자로 보는 이들의 주장은 노동운동진영 내의 정치적 분파와 노동조합 사이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가정하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사실은 앞장에서 보았듯이 경제민주주의적 개혁을 앞서 추구해 갔던 것은 LO였으며 사민당은 마지 못해 끌려가는 입장을 보였던 것이다. LO가 노동자들의 정책결정과정에의 참여라는 경제적 민주주의의 본질을 다루고 있었다면 저축과 투자의 적정수준의 유지로 실업을 막고 경제의 활력을 유지하는 것이 사민당의 우선적인 관심사였던 것이다.

둘째 권력의 분배는 계급행동의 동기이면서 제약조건으로 인식되어야 한다.<sup>31</sup> 이 제약조건은 계급갈등의 산물이지 사전의 합리적 계산의 산물이 아니다. 임금노동자기금 제의는 무엇보다도 높은 이윤을 산출하는 기업이나 산업부문의 임금상승에 제한을 두어야 하는 문제를 언급하고 있으며, 부와 권력이 더 이상 집중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완전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투자수준을 확보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임금노동자기금이 제안되었으나 노동권력이 원래의 안을 추진할 정도로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법과정에서 기업가들과 반사민정당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수준으로 급진적 성격을 완화시켜 나가야 했다. 더욱이 이러한 양보에도 불구하고 임금노동자기금은 반사민진영을 결속시키는 슬로건으로 유용

<sup>30</sup> Esping-Anderson, G. (1985) p.313

<sup>31</sup> Jonas Pontusson. 1984, "Behind and beyond Social Democracy in Sweden" *New Left Review* p.143 참조.

〈표 2〉 임금소득자기금에 대한 유권자들의 태도

	찬 성	반 대	미 결 정
모든 유권자			
1976	33	43	24
1979	32	45	23
1982	22	61	17
사민지지유권자			
1976	55	18	27
1979	58	15	27
1982	43	29	28

주: '노조가 관리하는 임금노동자 기금에 기업의 일부를 양도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느냐'가 질문내용  
이었다.

자료: SSören Holmberg, 1984, Völjare iförändring, Stockholm pp.170, 186 Jonas Pontsson, 1987, p.21  
에서 재인용

했으며 이들 반사민 진영은 임금소득자기금의 입법을 최후까지 반대하였던 것이다.

에스평안델센의 주장에 따르면 사민주의는 계급형성과 계급연합을 통하여 지속되어 왔고, 오늘날의 관건은 신중간층과 노동자를 연합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는 '사회민주주의의 힘을 증가시킬 수 있는가의 여부는 개량주의적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단결과 연대를 확대하고 강고하게 하고, 나아가 정치적 혜계모니에 이르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데 있다…… 이것이 바로 사회정책들이 재정부담에서 그리고 수혜에서 보편성을 띠도록 하려고 노력하는 까닭이다.'<sup>32</sup>

여기서 문제는 신중간층은 노동자와의 소득격차 축소에 대해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자계급의 의지에 따라 소득재분배 정책, 평등주의적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신중간층의 상실로 사민주의적 정책을 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 곧 신중간층과 노동자계급의 모두를 충족시키는 정책들이 우선 가능할 것인가도 분명치 않고(화이트칼라 노동자 내의 다양성 때문에 이를 묶어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다) 가능하다고 해도 사민주의가 추구하는 것이 이런 정도의 것인가하는 본질적인 의문이 제기된다. 사민주의가 지향하는 평등에의 실현은 노동계급의 감소로 영영 불가능하다는 것을 수용하자는, 그래서 사민주의의 개념자체가 새로운 것으로 바뀌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다.<sup>33</sup> 오늘날 스웨덴 사민주의자들

32 G. Esping-Anderson, 1985, p.317.

33 영국 노동당과 스웨덴 사민당의 정책지향의 차이를 비교 설명한 고세훈의 글 참조할 것. 고세훈, "복지국가위기론과 사회민주적 대응의 성격과 한계: 영국과 스웨덴을 중심으로"『새로운 세계질서의 도전과 한국정치』 1991, pp.269-308. 그러나 필자의 견해로는 장기적으로 볼 때 스웨덴도 단지 정도의 문제일 뿐 영국의 길을 걸어 가리라 본다.

이 직면하는 문제는 사민당의 이러한 노선에 대해 LO가 보다 강하게 평등주의적 개혁을 이루어 낼 것을 요구함으로써 계급간의 긴장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노동계급의 힘의 누적적 증가를 권력자원론자들이 주장하였지만,<sup>34</sup> 이와 더불어 자본의 권리 또한 사민당정부의 정책적 배려의 결과로 증대하였다. 연대임금정책의 시행은 한편으로 수출지향적인 거대기업들에 자본이 집중되도록 하였으며 스웨덴 경제가 더욱더 대외의존도가 높은 개방경제로 변화하게 하였던 것이다.<sup>35</sup> SAF(스웨덴고용주연합)가 오늘날 노동운동이 지향해 온 공공지출과 연대임금정책에 적대적인 태도를 공개적이고 적극적으로 취하는 것은 스웨덴이 추구해 온 경제성장과정을 통해 기업의 장기적 이익이 변하였기 때문이다. 수출기업, 다국적기업의 비중이 증대함으로써 내수시장의 확대가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기업이 집단적 결정구조를 해체하고자 하는 것도 국제적 경쟁구조가 생산조직의 유연성을 보다 더 요구함으로써 생겨나는 것이다.<sup>36</sup> 30년대 이래 조합주의적 결정구조가 형성되고 사민주의적 복지국가정책의 추구가 가능하였던 것은 내수산업과 수출산업으로 스웨덴의 산업구조가 양분된 상황을 노동이 적절히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sup>37</sup> 스웨덴경제의 원활한 작동이 스웨덴 사민주의의 중요한 목표라고 할 때 그 중요한 열쇠를 소수의 동질적 이익을 지닌 자본가들이 상당부분 장악하게 되었다.

## 2. 입법화된 임금소득자기금의 지향점과 한계

83년에 입법화된 임금소득자기금내용에는 ① 정부에 의하여 직접 지명되는 9인이 관리하며 5개의 기금은 0.2%(81년안에는 1%)의 고용세와 초과 이윤에 대한 20%의 세금으로 마련된다. ② 1984년에는 경상가격으로 4억 크로나를 넘지 못하도록 상한을 두었다. 1990년까지의 한시적인 기금은 최대한도로 스웨덴주식시장의 10%의 주식을 취득할

34 임금소득자기금의 성격과 관련하여 권력자원이론에 대한 비판도 이와 더불어 정교해졌다. 노동권력의 일방적 성장만을 주장하는 이론에 대한 반격은 Pontusson의 앞의 글들 그리고 Peter Swenson, 1991, "Bringing Capital Back In, or Social Democracy Reconsidered : Employer Power, Cross-Class Alliance, and Centralization of Industrial Relations in Denmark and Sweden" *World Politics*, V.43 No.4 July pp. 513-544. ; Peter Swenson, 1991, "Labor and the Limits of the Welfare State : The Politics of Intraclass Conflict and Cross-Class Alliances in Sweden and West Germany" *Comparative Politics*, V.23 No.4 July pp.379-400. 등의 글을 참조할 것. 자본가계급의 권리도 또한 증대하였기 때문에 노동운동의 좌절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었다는 최근의 주장은 Gregg M. Olsen, 1992, *The Struggle for Economic Democracy in Sweden*, Sydeny : Avebury.

35 Ministry of industry, Ministry of labor and Swedish Institute, 1991, *Policies for Structural Change in Sweden*, P.20.

36 Mark Kesselman et al, 1987, *European Politics in Transition* Lexington : D.C. Heath and Company, pp.540-41.

37 자세한 논의는 Gregg M. Olsen, 1992, 앞의 책 참조.

수 있을 뿐이었다. ③ 적어도 5명의 위원은 임금소득자로 충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어떻게 선발되어야 하는지의 규정은 없다(달리 말하면 노조가 공식적으로 지명되는 위원은 없다) 등의 것들이 들어 있다. 처음 의도하였던 임금노동자기금으로 사적자본가들의 자본을 대체하여 경제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취지는 상실되었다. 오직 제4 연금 기금처럼 부족한 자본투자를 매워줄 수 있는 또 하나의 기금일 뿐이다. 이것을 두고 사민주의자들이 추진하였던 3단계라고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당연히 이것이 사회주의로의 길을 열어 주는 분수령의 역할도 현재로는 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사민당의 당수 팔메는 입법을 위한 의회에서의 논쟁에서 이 기금안은 계속 이어질 첫번째 안이 아니라 최종적인 안이라고 단언하였다.<sup>38</sup> 이것은 그의 주장대로 스웨덴을 경기후퇴로부터 구하고자 하는 것이고 복지국가형성의 연장선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다.

83년의 법제정의 우선적인 동기는 80년 반사민 연립정부에 의해 도입된 경제정책의 방향을 사민당 정부가 고수하는 것을 LO가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고, 한편으로 임금소득자기금 문제로 완전히 사민당이 패배하였다는 인상을 주지 않으려고 한 측면도 있었다.<sup>39</sup>

사민당 정부가 추구하는 임금소득자기금의 가장 현저한 특징은 경제회복의 동력원으로서의 사적 부문을 새롭게 소생시키고자 하는데 있었다. 그러나 자본진영의 주장과는 달리 그 규모가 미약하였으며 운용상의 제약을 피할 수 없었다.

정부구성의 임금소득자기금 위원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실행가능한 노동자기금은 너무 작아서 순수자본형성에 의미있는 기여를 할 수도 없고 전반적인 부의 분배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수도 없다는 것이었다. 기껏해야 기금은 가계가 소유하는 부의 5%에 불과한 주식소유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이었다. 주식소유구조를 재조직하려는 시도가 경제적인 것이라면 효율적인 자본투자를 위해 독립적, 경쟁적인 다수의 기금으로 분할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정치적인 것이라면 기업 결정에 노동자들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노동자의 관리하에 놓인 당일 혹은 소수의 기금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그들은 이미 피력하였던 것이다.<sup>40</sup>

### 3. 임금소득자기금의 전개

임금소득자기금의 형성을 사민당이 추진하였던 것은 그들이 내걸었던 5가지의 목표 외에 경제를 회복하고자 하는 스웨덴의 제3의 길<sup>41</sup>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sup>42</sup> 그들은 실

38 Leif Lewin, 1988, *Ideology and Strategy : A Century of Swedish Politics*, Cambridge : Cambridge Univ. Press, P.297.

39 Jonas Pontusson, 1987, p25.

40 Hugh Heclio & Henrik Madsen, 앞의 책 pp.276-7.

41 제 3의 길은 높은 이윤을 보장함으로써 생산과 투자를 늘리고 완전고용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평가 절하를 통해 기업의 이윤을 보장하였으며 노동의 협조를 통해 임금인상을 억제하고자 하였다. 여기서의 관건은 임금인상의 억제였다. Ministry of Finance, 1983, *The Swedish Budget 1983/84*, Stockholm

업을 해소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선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보았다. 투자를 늘리기 위해 그들은 기업에 이윤을 보장하는 방법을택하였으며, 그것이 바로 1982년 16%의 평가절하였다. 그러나 여기서의 문제는 기업의 이윤이 증대할 때 노동자들이 그 이윤을 임금인상으로 잠식해 버리면 다시 70년대말 80년대초와 같은 경제적 침체가 닥칠 것이라는 네 있었다. 환율인하로 인한 소득의 상실과 기업의 이윤증대에 따라 발생하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임금인상 요구를 적정수준에서 막아 인플레를 억누르는 한편으로 임금소득자기금을 통해 투자를 증대하자는 것이 임금소득자기금 제안의 구상이었다.

그러나 그 대상은 “초과이윤 excess profit”을 남기는 기업의 이윤을 인플레로 인한 순실분을 감안한 후 20%를 기금에 출연하도록 강제한 것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임금소득자기금에 대한 자본가들의 반대는 결연한 바 있었다. 그들은 기업계에서 임금소득자기금 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결국 사기업부문의 대표의 참여없이 임금소득자기금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었다.(협동조합이라든지 공공부문 고용주조직 그리고 대학의 대표들의 위원회 참여가 이루어졌다.) 이것을 LO는 비록 기업대표의 참여가 없더라도 임금소득자기금은 훌륭하게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한다.<sup>43</sup> 그러나 이것은 제정 과정에서 이견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합의를 통해 결정하고, 결정된 것을 받아 들인다는 스웨덴의 정치전통과 배치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사민당의 부담은 클 수 밖에 없었다.

SAF에서는 스웨덴의 임금소득자기금이 근본적으로 다른 나라들의 노동자들의 주식배분과 다른 것이라고 주장한다.<sup>44</sup> 그것은 노동자들에게 주식이 돌아가는 사적 소유의 확산이 아니라 기금의 규모를 증대시키는 집산적 소유의 증대일 뿐이며 개별 노동자나 개별 노조의 힘의 확대가 아니라 중앙조직의 힘의 확대를 꾀할 뿐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이것은 기금의 구성이 강제적이며 중앙집중적이라는 점에서 여타 임금노동자기금과 다르다고 한다. 이들은 특히 이것을 노동운동이 계급권력의 획득을 위해 시도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매번 새로운 조합기금안을 내놓을 때마다 LO는 기금의 정치적 목표를 강조하였다. 새로운 제안이 이루어질 때의 LO 신문의 표제를 보면, 1976년의 경우 “기금문제는 권력을 누가 쥐는가의 문제이다.” 1978년은 “기금을 통해 점진적으로 권력을 장악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1981년 80년대의 강령을 채택하는 LO 전국대회에서 기금발전의 제3단계로 “결국 임금노동자들의 기금이 압도적인 주주가 되었을 때 …”라고 서술하고 있는 것이다.<sup>45</sup>

#### 참조.

42 LO의 한 보고서는 이것을 또 하나의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LO, 1988, 3 Years With *Employee Investment Funds : An Evaluation Stockholm* : LO, pp.29-44.

43 위의 글, p.16.

44 SAF의 한 출판물은 löntagarfonder가 임금소득자기금 wage-earner funds으로 번역되는 것은 잘못이며 그 성격상 노동조합기금 trade union funds으로 번역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Leif Widen, 1988, *Trade unions funds in Sweden*, Stockholm : SAF, P.1.

살펴 보았듯이 83년에 입법화된 임금소득자기금은 한시적이고 규모도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자본전영의 이러한 불안은 기금이 조성되는 중에서도 계속해서 유지되었고<sup>46</sup> 이것은 반사민진영을 결속하는 훌륭한 슬로건이 되었던 것이다. 사실 이러한 반대의 이면에는 노동권력의 성장과 경제민주주의의 실현을 단순히 싫어하는 감정이 임금소득자기금에 대한 실제적 우려보다 더욱 강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노동운동진영은 임금소득자기금에 대한 국민적 설득에 실패하였다. 임금소득자기금을 추진함에 있어 LO는 전국적으로 약 2만명의 노조활동가들을 학습운동을 통해 교육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국민적인 감정은 이윤의 분배가 개별노동자에게 주어지기를 원하였다.<sup>47</sup>

1991년의 선거에서 임금소득자기금에 대한 반대는 보수당과 자유당을 결속하는 선거 캠페인의 중요한 슬로건이었다.<sup>48</sup> 임금소득자기금이 사민당의 패배의 직접적인 원인이 라고 할 수는 없다.<sup>49</sup> 그러나 반사민진영은 ‘개인적 결정’, ‘개인적 소유’, ‘경쟁’, ‘세율인하’ 등을 내세워서 사민주의자들의 연대와 국가가 관리하는 복지의 제공을 거부하고 나섰던 것이다. 이러한 맥락위에서 임금소득자기금은 그것이 가지는 경제적 효과에 관계없이 이념적, 정치적 의미로서 이해되었고, 반사민진영은 임금소득자기금의 해체를 그들의 집권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이었다. 이제 선거에서 승리한 비사민진영은 임금소득자기금을 해체하고 있다.

45 Leif Widen, 1988, 위의 책, pp.5-6.

46 대자본가들의 판단으로는 임금소득자기금이 ‘무해하다’거나 ‘무의미하다’거나 ‘단지 또 하나의 투자자에 불과하다’는 정도였지만, 계속 반대운동에 참여하였던 것은 사회주의적 경제를 건설하고자 하는 또 다른 시도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은 Gregg M. Olsen, 1992, 앞의 책, p.116.

47 집산적 결정과 소유에서 자유주의적 개별화로 선호가 변화하는 경향이 91년의 선거에 이르기까지 존재하였다. Leif Widen, 1988, p7의 도표 참조.

48 Kjell Andersson et al. 1991, *Swedish Election Guide Stockholm* : Tryckeri AB.

49 89년이래의 경제적 곤경과 실업의 증대 그리고 세제개혁을 비롯한 사민당정부의 정책에 대한 불만이 LO와 사민당정부사이에 긴장관계를 형성하였던 것을 주요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80년말부터 악화되기 시작한 스웨덴경제를 회복하고자 사민당은 1989년부터 이른바 “금세기 최대의 세제개혁”을 89년부터 추구하였다. 납세자의 1/10만이 20%의 국세를 추가로 내도록 함으로써 일반납세자의 세율을 지방세의 평균인 30%에 머무르도록 하는 세제개혁을 단행하였다. 그리고 사민당은 부족한 세금을 주택에 대한 세금을 중과하고 주택보조금을 감소함으로써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정책의 추진에 덧붙여 사민당은 부가가치세를 2%정도 올려서 25%의 부가가치세를 거두어 들이고자 하였다. 이것은 LO의 대대적인 반대에 부딪혔다. 사민당은 파업금지법의 제출로 맞섰고 이것이 부결되자 내각이 총사퇴하기에 이르렀다. 보수당이 연정을 구성하기를 거부함으로써 사민당이 재집권하였지만 이러한 과정은 LO와 사민당 모두에게 커다란 타격이었다. 특히 사민당에 대한 LO구성원들의 불신과 배신감은 1991년의 선거에서 노동자들이 육체노동자들이 상당수 사민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거나 기권하도록 하는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VI. 결 론

사민당과 LO는 임금소득자기금의 취지의 정당성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있다. 그러나 6년에 걸쳐 조성된 기금이 스웨덴경제의 운용에 있어 유익하였는가에 대해서는 단언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LO의 경우는 처음 그들이 제안한 임금소득자기금안이 실행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오늘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사민당으로서도 임금소득자기금의 해체는 전적으로 정치적 결정이지 임금소득자기금 자체의 문제점에 일차적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단지 스웨덴의 정치제도는 합의를 존중하는 문화와 절차위에 서있다고 할 때에 그 내용이 어떠하든 임금소득자기금이 지속적인 반대를 불러 일으켰다는 점에서 존재의 상당한 정당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판단을 한편으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sup>50</sup>

그러나 앞서도 지적하였듯이 6년동안 조성된 기금의 총액이 매우 미미하여 스웨덴경제에 어떤 독자적이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점, 그리고 연간 자본금 3%의 납세라는 규정에 따라 그 운용이 수익을 보장하는 안정된 주식에 주로 투자됨으로써 특별한 기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지지 못하였다는 점, 게다가 1989년 말에 있었던 스웨덴 주식시장의 폭락으로 그나마의 기금액도 현저히 줄어 들었다는 점 등이 처음 의도하였던 기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지지 못하게 하였던 것이다.

최종적으로 입법화된 임금소득자기금의 내용은 1. (임금의 상승을 억제하여) 연내임금정책을 유지하게 하고, 2. 권력과 부의 집중을 막고, 3. 노동자의 자본에 대한 통제를 증대하고, 4. 자본형성을 증대하고, 5. 연금제도를 강화한다는 취지를 가진 것이었지만 그 규모가 작았고, 그나마도 90%이상의 기금이 기존의 주식을 구매함으로써 새로운 자본으로 추가된 것은 더욱 적었다.

기금의 자본이 기업의 소득으로부터 조성된다는 사실에서 임금소득자기금이 가지는 한계를 발견할 수도 있다. 투자가 위축되는 불황의 시기에 기금에서의 새로운 투자가 요구되지만 불황의 시기에는 기업이 기금에 내놓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 들어 필요재원을 기금이 확보할 수도 없는 것이다. 자본진영은 임금소득자기금의 표명하는 목적이 어떠하든 그 결과로 볼 때 임금소득자기금의 목적은 오로지 노동조합의 통제의 확산에 만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sup>51</sup> 자본의 규모에 한계가 있을 때 노동조합의 통제의 확대라는 주장도 그 의미를 동시에 잊을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볼 때 1976년 LO대회에서의 제안 당시의 사회주의로의 평화적 이행의 실험이라는 커다란 의미와는 달리 1983년의 입법은 자본주의 경제의 원활한 운용이라는 목표로 임금소득자기금이 제정되고 실행되었으며, 이러한 목표도 제정된 기금

<sup>50</sup> 1993년 1월에 있었던 LO의 경제학자 Gösta Dahlström, 스웨덴 사민당 '정보 및 정치선전 책임자' Bo Krogvig와 필자와의 대담에서 이들은 임금소득자기금에 대해 개인적 견해임을 전제하면서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

<sup>51</sup> Leif Widen, 1988, 앞의 글, p 10.

법의 제약과 현실 경제의 위기로 제대로 추구될 수가 없었던 것이다.

많은 국민들은 왜 노동운동이 임금소득자기금을 만들고자 했는지, 그리고 그토록 오랜 기간 동안 왜 이런 임금소득자기금에 대해 논란들이 있어 왔는지를 의아해 하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1991년 12월 아래의 해체 작업에 대해서도 노동운동의 특별한 반대를 찾아볼 수가 없으며, 이제 다시 사민당의 집권이 이루어지더라도 임금소득자기금을 재형성한다는 것은 전혀 생각할 수 없다.

### 〈참 고 문 헌〉

#### 고세훈

1991 “복지국가위기론과 사회민주적 대응의 성격과 한계: 영국과 스웨덴의 경우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편 새로운 세계질서의 도전과 한국정치* (제 2차 한국정치 세계학술대회) 269-308.

#### 신팍영

1990. 8월 “스웨덴 사회민주주의와 경제정책” *『사회비평』* 4:260-288.

Anderson, John

1988 “Employee and Trade Union Investment Funds in Quebec and Sweden: A New Strategy for Labour?,” *Lund Studies in English* 78.

Andersson, Kjell, et al

1991 *Swedish Election Guide Stockholm*: Tryckeri AB.

Esping-Anderson, G.

1981 “From welfare state to democratic socialism: the politics of economic democracy in Denmark and Sweden,” *Political Power and Social Theory* 2:111-140 Greenwich, Conn.: JAI Press.

1985 *Politics Against Markets: The Social Democratic Road to Power*.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 Press.

1990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 Press.

Heclo, Hugh, and Henrik Madsen

1987 *Policy and Politics in Sweden: Principled Pragmatism*. Philadelphia: Temple Univ. Pr.

Hentilä, S.

1978 “The origin of the folkhem ideology in Swedish social democracy,” *Scandinavian Journal of History* 3:323-345.

Himmelstrand, U., et al

1981 *Beyond Welfare Capitalism*. London: Heinemann.

Hopkins, Karen

- 1977 *Sweden: Focus on Post-Industrialism*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Kesselman, Mark, et al
- 1987 *European Politics in Transition*. Lexington:D.C.Heath and Company.
- Korpi, Walter
- 1978 *The Working Class in Welfare Capitalism: Work, Unions and Politics in Sweden*. London: Routledge.
- 1983 *The Democratic Class Struggle*. London: Routledge.
- Lewin, Leif tr. by Victor Kayfetz
- 1988 *Ideology and Strategy: A Century of Swedish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 LO
- 1988 *3 Years With Employee Investment Funds: An Evaluation*. Stockholm: LO.
- Meidner, Rudolf
- 1978 *Employee Investment Funds*. London:George Allen & Unwin.
- 1980 "Our Concept of the Third Way: Some Remarks on the Socio-Political Tenets of the Swedish Labour Movement," *Economic and Industrial Democracy* 1-3:343-369.
- Olsen, Gregg M.
- 1992 *The Struggle for Economic Democracy in Sweden*. Aldershot: Avebury Ashgate Publishing Limited.
- Petersson, O.
- 1978 "The 1976 election: new trends in the Swedish electorate," *Scandinavian Political Studies* 1:109-121.
- Pontusson, Jonas
- 1984 "Behind and beyond Social Democracy in Sweden," *New Left Review* 143:69-96.
- 1987 "Radicalization and Retreat in Swedish Social Democracy," *New Left Review* 146: 5-33.
- Przeworski, Adam
- 1985 *Capitalism and Social Democracy*.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 Przeworski, Adam., and J. Sprague
- 1986 *Paper Stones: A History of Electoral Socialism*. Chicago:The Univ. of Chicago Press.
- Rehn, Gösta
- 1985 "Swedish Active Labor Market Policy: Retrospect and Prospect," *Industrial Relations* 24-1:62-89 Univ. of California at Berkeley.
- Rock, Charles P.
- 1987 "Recent Reforms Democratizing Swedish Economic Institutions," *Journal of Economic Issues* 21-2:837-845.

- Sainsbury, Diane  
 1980 *Swedish Social Democratic Ideology and Electoral Politics 1944-1948: A Study of the Functions of Party Ideology*. Stockholm: Almqvist & Wiksell.
- Steinmo, Sven  
 1988 "Social democracy vs. socialism: goal adaptation in Social Democratic Sweden," *Politics & Society* 16:403-446.
- Stephens, John D.  
 1979 *The Transition from Capitalism to Socialism*. London: Macmillan.
- Swenson, Peter  
 1991 "Bringing Capital Back In, or Social Democracy Reconsidered: Employer Power, Cross-Class Alliance, and Centralization of Industrial Relations in Denmark and Sweden," *World Politics* 43-4:513-544.
- 1991 "Labor and the Limits of the Welfare State: The Politics of Intraclass Conflict and Cross-Class Alliances in Sweden and West Germany," *Comparative Politics* 23-4: 379-400.
- The Ministry of Finance  
 1983 *The Swedish Budget 1991/92*. Stockholm.
- The Ministry of industry  
 1991 Ministry of labor and Swedish Institute, *Policies for Structural Change in Sweden*.
- Widen, Leif  
 1988 *Trade Unions Funds in Sweden*. Stockholm: SAF.

### Swedish social democracy —the limits of *lönigarfonder*—

Gi-Je Cho

Swedish labor movement has made unique Swedish social democratic model by powerful labor organization and SAP which has stayed in power for a long time. Swedish social democratic model was recognized as an alternative which has the strong points of capitalism and socialism.

In the middle of 1970s, LO suggested *lönigarfonder*(wage earner funds), which was estimated as an advance of Swedish labor movement. Though the first suggestion had such character, the process of making *lönigarfonder* shows us the reality and limits of labor power in contrast to the hope of Swedish labor movement.

The operation of Swedish model brought the growths of both labor power and capital

power at the same time. Capitalist camp vehemently rejected *löntagarfonder* which attacked the private ownership of the means of production. There was evident difference of the reasons why they wanted to introduce *löntagarfonder* between LO and SAP. Because swedish social democratic model is workable on the economic growth, SAP wanted to compromise with capitalist camp. *Löntagarfonder* was used as a slogan which attack Swedish labor movement.

조기제, 전주교육대 윤리과 교수

Tel: 0591-40-1204

Fax: 0591-745-8741